

## 고려해운

천안함 희생자 성금 3,000만원 기탁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지난 4월29일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순국장병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은 성금기탁에 대해 "국토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국한 천안함 장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천안함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 글로벌리스

4900CEU급 자동차운반선 1척 인수



글로벌리스(사장 김경배)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물량의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최근 독일의 선주사인 리크머스(Rickmers)로부터 4900ceu(ceu는 자동차 1대)급 자동차운반선(PCTC) Vany Rickmers호를 인수받았다.

Vany Rickmers호는 중국 샤먼조선에서 건조돼 지난 2월 22일 인도됐으며 글로벌리스에 용선돼 아시아-북미, 남미, 중동항로에 배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Vany Rickmers호는 MAN사의 MAN 9S50MC-C 엔진이 장착돼 20노트로 운항이 가능하다.

리크머스는 Vany Rickmers호와 동형선인 Cary Rickmers호를 오는 5월에 인도받아 역시 글로벌리스에 용선할 계획이다.

글로벌리스는 지난 2월초에 자동차 운반선 3척을 2012년 5월중에 인도받는 조건으로 1억 9100만 달러에 신조 발주하는 등 자동차 운반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는 향후 현대·기아자동차의 운송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그동안 수출자동차 해상운송과 관련해 유코카캐리어스에 100% 독점 수송권을 보장해줬지만 2008년초에 장기운송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0년에는 운송물량의 80%, 2011년에는 65%, 2015년에는 60%만을 운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리스는 유코카캐리어스에서 넘어오는 자동차 해상운송물량을 모두처리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반선대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크머스가 최근 인수한 Vany Rickmers호는 리크머스가 확보한 102번째 사선이다. 리크머스의 100번째 사선은 지난해 12월에 중국 New Yangzijiang 조선에서 인도받은 4250teu급 컨테이너선 Tanja Rickmers호로 현재 한진해운에 장기 용선돼 'Hanjin Duesseldorf' 호로 운항중이다.

101번째 선박은 Tanja Rickmers호와 자매선인 Schliemi Rickmers호로 지난 2월초에 인도받아 역시 한진해운에 장기용선을 줬다. Schliemi Rickmers호는 Hanjin Montevideo호로 선명이 변경돼 운항중이다.

## 대한통운

10년연속 임단협 무교섭 체결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노동조합과 무교섭

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4월21일 체결하였다.

이날 서울 서소문동 대한통운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단협 체결식에서 이원태 사장과 차진철 노조위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통운 노사는 10년 연속 무교섭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기록을 갖게 됐다.

이원태 사장은 '노사 화합은 회사 발전의 근간'이라 강조하고 "전통적인 우수한 노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선진일류기업 'NEW대한통운'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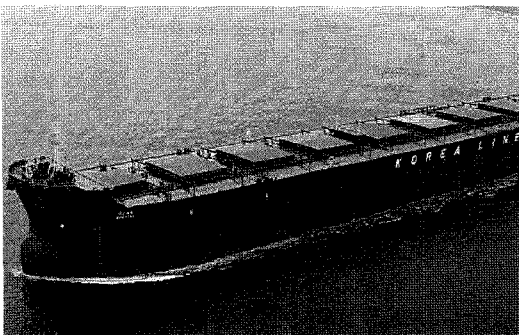
차진철 노조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역사사지 정신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196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49년간 무쟁의, 무분규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한통운은 이같은 노사의 상생협력에 기반해 올해 통합운영하고 있는 대한통운, 한국복합물류, 아시아나공항개발 3사 기준 매출액은 2조 1,000억 원을, 영업이익은 1,4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 대한해운

18만DWT 케이프사이즈 전용선 인수



대한해운(회장 이진방)은 18만DWT급 신조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로즈마리호'를 인수했다.

대한해운은 4월2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8만DWT급 신조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로즈마리호'의 명명식 및 인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수식에는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을 비롯하여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장도수 사장의 부인인 최옥희 여사가 스폰서로 나섰다.

로즈마리호는 한국남동발전과의 장기 운송계약에 따라 앞으로 15년 간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연간 150만, 총 2,250만의 석탄을 수송해 3,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예정이다.

대한해운은 이번에 로즈마리호를 인수함에 따라 한국전력 전용선 4척을 포함해 총 20척의 전용선을 보유함에 따라 국내 대표 전용선사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한해운은 현재 사선과 용선을 합쳐 약 20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내 제철소 및 인도, 브라질 등 자원부국과의 장기 운송계약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방 회장은 기념식에서 "33년간 전용선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항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국내 발전사에 투입되는 전용선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산업 발전동력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 전했다.

또한 대한해운 이진방 회장과 임직원은 28일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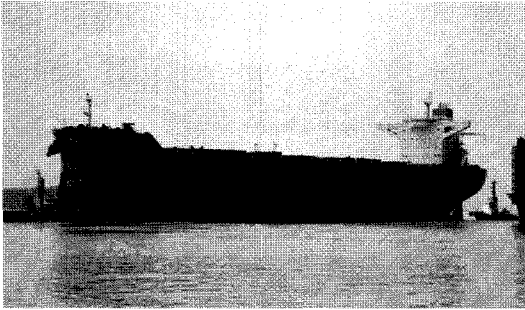
대한해운은 이날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유족지원 성금 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진방 회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국한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STX팬오션

18만1,000톤급 케이프사이즈 인수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4월9일 진해 STX 조선해양에서 건조한 18만1000톤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STX 노블(STX NOBLE)' 호를 성공적으로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STX팬오션은 초대형 벌크선인 케이프 사이즈 선박 9척을 확보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철광석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팬오션은 그 동안 중국의 New Times 조선소에 9척, STX조선해양에 4척 등 총 13척의 케이프사이즈 선박을 발주했으며, 현재까지 STX NOBLE을 포함 2척을 인도받았다.

현재 STX팬오션은 벌크선 46척과 탱커 20척, 컨테이너 8척, PCTC 2척, 반잠수식 초중량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77척의 사선대를 포함 총 420여척의 선대를 운용 중이다.

STX팬오션 전략기획본부장 김영철 상무는 "STX 노블호는 앞으로 국내의 철광석과 석탄을

수송하는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STX팬오션은 경쟁력 있는 선대를 꾸준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영업력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TX팬오션은 인도 대규모 에너지 공급업체인 C&O(Coal & Oil; 콜앤오일, 중동 본사)그룹과 10년간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인도로 실어나르는 장기운송계약(COA)을 체결했다.

STX팬오션 대형선담당 정갑선 전무는 4월3일 인도 투티코린 현지를 방문해 아메드 부하리(Ahmed Buhari) C&O그룹 대표와 2012년부터 10년간 연간 약 100만톤씩 총 1,000만톤 규모의 석탄을 실어나르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연간 석탄 수입량은 지난 2005년 4,000만톤을 넘어선 이후 매년 1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총 7,400만톤을 기록했다. 2010년 3월말 기준 수입량이 2,000만톤을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064만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의 석탄 수입량이 2020년 3억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현재 일본 석탄 수입량(약 1억 6,000만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인도의 중장기 화력발전소 증강 계획과 더불어 원료탄과 일반탄의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TX팬오션이 지난 2009년 수송한 약 1억톤에 달하는 물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0만톤으로 벌크 화물의 27%에 달한다. 특히 파나마급 대형선을 활용한 광물영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각국 제철소와 화력 발전소들의 안정적인 원료수급에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다.

STX팬오션 인도 비즈니스 TFT를 총괄하고 있는 정갑선 전무는, “해운 시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업력 확대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및 선·화주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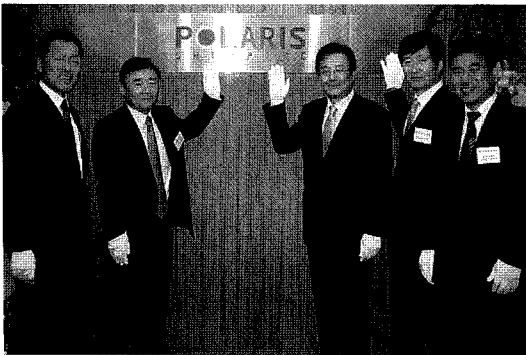
한편 STX팬오션은 이번 계약 수행을 위해 약 80,000톤의 석탄을 선적할 수 있는 벌크 선박을 확보, 본격적인 운송에 나섬과 동시에 선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STX그룹은 지난 26일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 및 유가족들을 위해 성금 5억 7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STX는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실시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으며, 26일 KBS를 통해 천안함 성금을 기탁했다.

## 폴라리스쉬핑

부산사무소 개소식



폴라리스쉬핑(대표 김완중)은 지난 4월16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DK빌딩에 위치한 부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

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 부산사무소는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으로 선박관리업무 전문가로 알려진 김춘만 상무를 사무소장으로 영입했으며 10명정도의 직원을 확보해 선박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폴라리스쉬핑은 포스코 전용선으로 투입한 26만dwt급 개조 VLOC 4척을 비롯해 총 5척의 VLOC와 벌크선 개조작업이 진행중인 15만 dwt급 수에즈막스 탱커 2척, 700teu급 컨테이너선 1척 등 총 8척의 사선대와 장기용선중인 26만 dwt급 VLOC 3척 등의 용선대를 운항중이다.

폴라리스쉬핑이 이번에 부산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처럼 사선대와 용선대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선박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서울 본사의 해상본부에서 선박관리를 해왔던 폴라리스쉬핑은 협력업체가 대다수 소재해 있고 선박관리 전문인력이 풍부한 부산에 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향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사장 이날 개소식에서 “지금까지 많은 선대를 확충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선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부터 다가올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산사무소를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산사무소 개소로 폴라리스쉬핑은 앞으로 본사 해상본부는 신조 및 개조프로젝트 수행과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부산 사무소는 선박 유지관리보수와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공무 및 해무 업무를 관장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폴라리스쉬핑 개소식에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한국선급 최영선 부산지부장, 한원마리타임 한희승 사장을 비롯해 50여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 천경해운

포항영일만~중국항로 개설

국내 중견선사인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세계2위 항만인 중국 상하이~닝보항과 포항영일만항을 오가는 추가 항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포항시와 '영일만항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을 4월27일 오후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날 포항시와 협약을 체결한 천경해운은 한·중·러에 비교우위를 점한 국내 굴지의 선사로 704TEU급 'Hunzetrader(8200톤급)'호가 오는 5월12일 첫 입항할 예정이며 상하이항과 닝보항으로 주 1회 정기운항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영일만항은 대중국 수출입물동량 확보와 동남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항로 서비스 제공으로 항만세일과 물동량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 날 포항시와 협약 체결은 개항 2년차를 맞은 영일만항에 북중국, 일본동·서안, 극동러시아와의 직항로와 부산신항과의 연안항로가 개설된 데 이어 6번째로 중국 상하이노선 개설로 동북아 전역에 대해 뱃길이 열리므로 명실상부한 환동해를 넘어 국제물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시에서는 이번 천경해운의 포항영일만~중국 항로 개설은 포항지역과 대구·경북 수출입 업체에 더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항로 서비스제공으로 물류비 감소 등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이익을 안겨 줄 것이며 포항시의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은 물론, 포항의 미래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또한 "영일만항 추가 기항을 결정한 천경해운과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쌍용

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러시아 수출물동량 유치와 앞으로 새로운 물류시장인 동북3성 개척을 통해 환동해 물류 패러다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각계 각층에서 혼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에 따라 5월12일부로 기존 부산~상하이~닝보 서비스에 포항영일만항이 추가된다.

## 한진해운

종합 해운물류시스템 ALPS 오픈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의 차세대 종합 해운물류 서비스 시스템인 ALPS(Advanced Logistics Pathfinder System)가 4월5일 첫 선을 보였다.

2008년 6월부터 당사와 해운물류 IT회사인 싸이버로지텍, 한국 IBM GBS 등이 참여, 약 2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금번에 개발된 ALPS 시스템은 신속한 화물 선적이 가능하도록 Booking(화물 예약) 정보 기반 구축, 위험화물 선적에 대한 Pre-Checking(사전 점검) 기능, Booking과 B/L 넘버 단일화 등 현장 점소 업무혁신을 통한 화물 예약 시스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기능을 선진화시켰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통합 고객 맞춤 Invoice(송장) 발행, 신속한 컨테이너 장비의 사용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진두 지휘한 양인모 상무는 "복잡하고 정교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해운 물류 업무 특성을 파악, 세계 각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전 세계 어느 선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고도의 효율성을 갖춘 IT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2년간의 어려운 해운 환경에도 약 400억 원의 IT투자를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 Service Provider와의 운송 정보 협력 강화, 최신 웹 기반의 관리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고객 NEEDS파악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T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진해운은 지난 1월 지중해~서아프리카 노선을 신규 개설한 데 이어 이달 12일 아시아에서 남아프리카를 잇는 항로를 신설했다. 한진해운이 아프리카로 가는 직항로를 개설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한진해운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시장 참여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상선

中 허베이강철그룹 철광석 수송계약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세계 2위 철강업체인 중국 허베이강철그룹(Hebei Steel Group, 河北鋼鐵集團公司)과 15년간 철광석 수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상선은 중국 해운회사 산둥화이스트머린그룹(Shan Dong Far East Marine Group, 山東

遠東海運集團)과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15년간 브라질, 호주 등지에서 연간 150만톤, 총 2,300만톤의 철광석을 중국 허베이강철그룹으로 수송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상선 매출로만 연간 2,100만 달러, 15년간 총 3억1,500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다.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은 4월13일 중국 칭다오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허베이강철그룹과의 운송 사업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선사와 중국 화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현대상선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영업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을 비롯 장위국(Zhang Weiguo) 산둥화이스트머린그룹 회장, 고흥도(Gao Hongtao) 산둥교통운수청 부청장, 장애당(Zhang Aidang) 허베이강철그룹 부장 등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올해 초 산둥화이스트머린그룹(Shan Dong Far East Marine Group, 山東遠東海運集團)과 전략적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현대상선은 조강 생산 기준 세계 2위의 중국 국영철강회사 허베이강철그룹과의 거래를 시작으로 향후 중국의 철광석 등 원자재 운송시장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케이엘넷

RFID 솔루션, 글로벌 국제인증 획득

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4월3일 자사의 RFID 미들웨어 솔루션인 ‘유링크스(ULINKERS)’가 EPC글로벌로부터 RFID 국제표준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응용레벨 ALE(Application

Level Events) 1.1에서 세계 6번째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는 국제 표준을 인증 받은 RFID 미들웨어 제품을 요구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IT서비스 업체를 포함해 전자태그(RFID)관련 업체들이 'EPC(Electric Product Code) 글로벌' 인증 획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본격 나서고 있다.

EPC글로벌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유링커스'는 RFID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미들웨어)로서, RFID 리더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운영시스템(Legacy System)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PC글로벌은 RFID에 입력되는 전자상품코드(EPC : Electric Product Code)를 관리하는 국제 민간표준기구로서, 전 세계 RFID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EPC글로벌 인증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용 가능한 RFID 제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케이엘넷 박정천 사장은 "유링커스가 EPC글로벌 인증을 획득한 것은 EPC글로벌의 표준을 준수한 다른 RFID 시스템과 언제든지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다른 연결시스템과의 연동에도 자유로운 기술력을 인정받은 쾌거로서, RFID사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천 사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희생 장병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기탁에 참여한 김진식 경영지원실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조금이

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케이엘넷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마련됐다.

## 한국해양대학

### 해사안전기술 협력체계 국제세미나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4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발도상국 해사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개발도상국 해사안전기술 협력시스템 구축 연구(2009.7~2012.6)'의 1차년도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만, 베트남 등 잠정적인 해사안전기술 수원국의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13명을 초청, 해당 국가의 해사안전기술 현황과 기술이전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세미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ODA)과 해양 안전 기술, 국가별 해사안전기술상황, 해사안전기술협력 등에 관한 20여 개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항과 울산 현대중공업 견학도 병행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해사안전기술개발이나 국제협약 이행의 역량이 부족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안전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해난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 동결 발표

한국해운조합(회장 박홍진)은 4월28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 동결을 발표했다.

부산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해운조합은 선주배상책임보험(P&I) 사업 운영방법 및 담보범위,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증장 제공 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안내했다.

이날은 용선선박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방법, 4대강 사업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작업선 및 예부선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P&I) 담보범위, 법률상 P&I 강제가입 대상 및 선주의 책임제한 등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올해 IGA P&I Club들이 평균 5%의 요율인상을 했으나 해운조합은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 자체긴축경영을 통한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기본보험료를 동결하고 일부 선종 및 톤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IGA P&I Club이 보험시장의 Hard화, 투자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매년 요율을 인상하여 지난 10년간 누적 인상률이 316%에 이르는 동안, 해운조합은 철저한 손해를 관리 및 효과적인 재보험 협상을 통해 요율 동결 내지 최소한의 요율인상만을 실현해 온 바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우리나라가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O)를 수용한 개정 유류오염손해상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5월 16일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선주배상책임보험(P&I) 사업을 개시했으며, 선주배상책

임공제(P&I)의 계약기간은 매년 5월 16일에서 다음해 5월 15일까지이다.

## 한국선급

창립 50주년 행사 인도에서 성황리에 개최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4월16일 오후 7시 인도 뭍바이 트라이던트 호텔에서 인도 해사계 VIP 100여명이 참가하는 한국선급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선급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뭍바이 이서향 총영사, 인도국영선사 그로버 사장(Mr. U. C. Grover), 인도선급 아난 회장(Capt. J. C. Anand), 인도해사청 벤카타차람 청장(Ms. Lakshmi Venkatachalam)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한 한국선급은 이날 기념식장에서 한국의 국격향상과 직결되는 대형 국제행사인 G-20 서울 정상회의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 브로슈어, 종이가방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행사장에 비치하고 인도 해사계 저명인사들에게 한국 알리기에 앞장섰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선급은 지난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이번 달 인도를 시작하여 중국, 영국, 그리스, 터키, 홍콩, 싱가포르 및 한국에서 세계 해사계 리더들을 초청하여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선급은 4월8일 2010년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선급은 새로운 경영진 출범과 함께 '비전 2020'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에 기회를 부여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상근 임원] △정영준 경영지원본부장 △김규섭



정부대행본부장 △이정기 감사지원본부장 △조남수 사업본부장 △전영기 기술지원본부장

[고문 선임] △신의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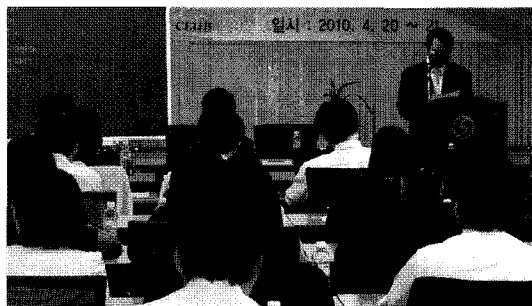
[부서장급 승진] △조순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배 연수원장 △남종식 미래전략기획팀장 △민병선 경영혁신TFT팀장 △김해경 기본기술팀장 △장봉중 선급규칙팀장 △전완수 함정기술팀장 △정우동 회계재무팀장(비서팀장 겸무) △노종현 등록선업무팀장 △이영식 낭보지부장 △한창영 상하이지사장 △박영호 사옥건설 TFT팀장

[부서장급 보직 변경] △민재진 인재개발팀장 △김충희 교수팀장 △하원재 교육업무팀장 △마진섭 목포지부장 △김창욱 선체기술팀장 △박문규 시스템인증팀장 △이영선 포항지부장 △손용현 장생포지부장 △최영선 부산지부장 △장내찬 창원지부장 △정경문 여수지부장 △윤용대 광양지부장

[부서장급 신규 선임] △원영일 법무팀장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선하증권 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이윤재)은 지난 4월 20일, 21일 양일간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조합원들 및 해운업계에서 해상화물 운송계약인 선하증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업계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선하증권 심화교육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선주협회에서 개최된 이날 교육에서는 윤운대 박사와 이인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고문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선하증권의 주요 내용, 해상운송과 선하증권의 의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과 선하증권에 편입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이번 교육은 4월26~27일 양일간 부산 STX 빌딩 대강당에서 동일한 주제로 다시 개최되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 가족 수상레포츠 무료체험 제공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은 올해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오전 10시~ 오후 5시/ 휴관일 및 토요일 제외)한강거북선나루터(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에서 해양소년단 임원 및 가족, 해양관련 업·단체 직원 및 가족들에게 해양가족 수상레포츠 무료체험을 제공한다.

고무보트/ 카누/ 바이킹보트/ 드래곤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무료 체험은 해양소년단 임원 및 해양관련 업·단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건전한 여가생활로 인한 재충전 기회 제공, 화목한 가정 형성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사명과 이름이 명시된 명함 한 장이면 무료체험이 가능하며, 7인 이상일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거북선나루터 02-790-1891로 문의하면 된다.